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이 연 옥 (Yeon-Ok Lee)*
장 덕 현 (Durk Hyun Chang)**
이 승 민 (Seung Min Lee)***

< 목 차 >

I. 서론	V.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개발 방안
II. 이론적 배경	VI. 결 론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 경험 및 요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관련 요구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및 학습에 대한 요구, 3)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관련 요구, 4)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지원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1)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2) 자녀의 학습, 3) 자녀의 언어교육, 4) 다문화이해교육, 5) 도서관이용교육과 안내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도서관프로그램, 다문화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다문화가정 이용자, 정보요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ublic library programs that support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ir information needs, focusing on the children's education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purpose, the data on experiences and need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six types of children's education-related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1)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educational system and situation of Korean schools, 2) Their children's needs for language and learning 3) Their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4) Educational information for the role of parents, 5)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ir children at school 6) Supporting library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se needs, the following programs were suggested: 1) Parent role program for children's education, 2) Children's learning program, 3) Children's language education program, 4)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5) Library user education and guidance.

KEYWORDS: Library Program, Multicultural Services,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User, Information Needs

* 부산대학교 BK21 생활밀착형정보서비스 전문인력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idisfeel@hanmail.net / ISNI 0000 0004 6487 2027)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석사(ekfi2350@naver.com / ISNI 0000 0005 0720 4740)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2년 5월 25일 • 최초심사: 2022년 6월 2일 • 게재확정: 2022년 6월 9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37-163,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37>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21년 기준 대략 266,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학령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21).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가 2012년의 672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21% 줄어든 반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8명으로 3.4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부족으로 자녀의 언어습득이 원활하지 않고 교과학습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오만석, 2011; 오성배, 2005).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에서 숙제나 학습 등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재분, 이혜영, 김혜원, 2009).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및 학업수행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져 학업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습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김강남, 2021).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는 중도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적응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현장에서의 적응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다문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 내 공공 문화시설 내에서의 다문화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전국적으로 다문화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다문화자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 배경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들로부터는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이주민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한 일방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공급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구정화 외, 2020; 이경란, 한복희, 2009). 또한, 공공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으로 제공되는 실정이라 여타

관련 기관들과 중복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이연옥, 장덕현, 2013).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로부터도 도서관프로그램이 본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으며, 타 기관과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운옥, 조미아, 김수경, 2009). 그 결과 이주민의 도서관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적이며, 참여하더라도 일회적 참여로 그쳐 도서관이용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이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구정화 외, 2020, 224).

IFLA(2009)의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서관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봉사대상인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봉사대상인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의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해외 도서관 서비스 사례와 지침을 소개하여 국내 다문화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거나 서비스제공자인 사서의 시각과 입장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도서관서비스의 수요자인 이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제한적이라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관련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세부 요구를 고찰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과 현황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결합으로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유학생가정을 포함한다(장온정, 2010, 82).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족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1호에 의하면, '출생, 인지,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어진 가족'이라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문화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인과 이룬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적용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구성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족이나 유학생가족 등 이주현상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 가정 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결합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국제결혼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가정, 유학생가정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21년 기준 266,3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9.9%(106,263명), 초등학교 연령이 41.8%(111,371명), 중고생 연령이 18.3%(48,687명)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학교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육부(2021)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현재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160,05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이 2012년 0.7%에서, 2017년 1.9%, 2021년에는 3.0%를 차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문화가정 유형에 따라 그 수적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가 122,095명, 국제결혼으로 중도입국한 자녀가 9,427명, 외국인가정 자녀가 28,536명으로 집계된다(교육부, 2021).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76.3%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국내 출생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에 중점을 두고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다문화가정의 세부적인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 요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관련 연구

국내 문헌정보학에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라는 영역에서 수행되어왔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도서관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도서관프로그램뿐 아니라 도서관의 장서, 목록, 사서 등 인력을 포함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다문화 관련 제반 업무를 포괄하는 의미'(양수연, 차미경, 2011, 312)로 이해되어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노지현, 2012; 양수연, 차미경, 2011; 이미정, 이미정, 2013; 이연옥, 장덕현, 2013; 임형연, 2019;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이 중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역사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사례나 지침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서비스 방향을 비롯하여 모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을 통해 다문화서비스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김영순, 이미정, 홍유나, 2014; 김윤영, 2019; 안인자, 박미영, 2011; 이경란, 한복희, 2009; 임여주, 2018). 이들 연구는 도서관서비스 개발과 운영 주체인 사서들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해서 국내 다문화서비스의 수준과 한계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대상자인 이주민의 도서관서비스 경험과 요구를 조사한 연구가 일부 있다. 김영미와 조인숙(2011)은 사서와 이주민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도서관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은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담당 사서 및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서관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구정화 외(2020)는 이주민, 다문화전문가,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사서와 다문화전문가 이외에 이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기초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서비스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사서의 이해 증진, 수요자 중심적인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로의 전환, 다문화가정 유형별 요구에 맞는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서관 협력에 기초한 다문화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교육과정의 체계화 등을 제안하는 양태를 띠고 있어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다각적이며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세부 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이들 그룹별 정보요구와 행태에 기반한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 연구로, 조용완(2006)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문제를 조사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임여주(2016)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청소년의 정보요구와 미디어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연구는 1) 해외 사례와 지침을 소개하고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필두로, 2)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자인 사서의 시각과 경험에 근거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한 연구, 3) 이주민의 도서관 이용 경험과 인식을 기초로 다문화서비스를 점검하고 요구를 파악한 연구, 4) 이주민 세부 그룹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 방안을 도출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연구 중에서 1)과 2)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도서관서비스의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이주민의 도서관경험 및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제한적이라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조명한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은 적응 과정에서 언어, 교육, 고용, 주택, 건강, 복지, 법률, 여가, 교통, 은행 등의 주제 영역에서 정보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Caidi, Allard, & Quirke, 2010). 이 같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관련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교육문제’ 영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 영역을 기반으로 정보요구에 대한 고찰과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질적 연구의 틀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입장과 시각, 고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의 실제적인 요구를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기에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질적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 중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하여 모집하였으며,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하는 동질적인 표본 선정을 채택하였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풍부한 정보를 가진 특정 집단의 선택을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진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며, 연구자의 한국어 질문을 듣고 이해하여 한국말로 표현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발굴하였다. 이를 위해 B 지역 소재 결혼이주여성 지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5인을 추천받았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 중 1인이 참여한 다문화 아동 멘토링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학부모에게 요청하여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이후 연구참여자

6인으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한 지인들을 소개받아 3인의 참여자가 추가되었다. 그 결과 총 9인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국적 3명, 몽골 3명, 캄보디아, 중국, 일본이 각각 1명으로 이들 모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내 주양육자이면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을 학부모 1, 2, 3, 4, 5, 6, 7, 8, 9로 칭하기로 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국적	거주기간	자녀현황
학부모 1	베트남	13년	2명(13세, 10세)
학부모 2	베트남	12년	1명(10세)
학부모 3	베트남	12년	1명(11세)
학부모 4	몽골	13년	1명(12세)
학부모 5	몽골	11년	1명(10세)
학부모 6	몽골	18년	2명(11세, 9세)
학부모 7	캄보디아	10년	1명(10세)
학부모 8	중국	16년	2명(13세, 12세)
학부모 9	일본	14년	2명(12세, 9세)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대면 및 비대면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각 면담의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면대면 또는 비대면(Zoom)으로 이뤄졌고, 면대면의 경우 참여자의 집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통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는데 면담 초기에는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후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이나 걱정,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비롯한 요구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모든 면담은 대화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대면 면담은 휴대전화기로 녹음되었으며, 비대면 면담은 녹화되었다. 면담 직후 녹음 및 녹화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면담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정확히 표현되지 못한 부분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재검토되었다.

면담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질적 연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QSR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면담자료를 토대로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정의 경험 및 어려움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은 동일한 면담내용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질적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구술을 제재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하였다. 녹취록은 면담내용 그대로를 필사하여 확정하였으며, 분석과정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참여자로부터 전화확인을 거쳐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공동연구자들이 각자 코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는 토론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연구자 1명으로부터 연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 및 의견수렴을 하는 등 동료지지집단 활용을 통해 연구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가정의 요구

가.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학부모라는 역할이 부여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특히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이 큼에도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의 교육체계와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학교생활, 입학 준비, 교육과정, 교과내용, 학교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 등을 잘 알지 못하며, 모국의 학교시스템과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과 혼돈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몽골에서는 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사항을 학교에서 상세하게 적어줘서 엄마들이 다 준비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서점가서 사야 해요.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안내를 안 해서 너무 노심초사했어요. 아니면 내가 모르고 놓친 건가? 뭘 준비해야 하나?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근처 학교에 직접 가서 물어보았어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행정실 선생님이 웃으면서 가방과 실내화만 보내면 된다고 해요. 저는 아이 학교 입학 때문에 두 달 동안 너무 신경 쓰이고 떨리고 했어요. 교과서는 어디서 구하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책을 준다고 해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학부모 4).

저는 '더하기'라는 말만 알고 '덧셈'이라고 하면 뭘 물어봤어요. 수학에서 넓이, 높이라는 용어도 저도 애도 생소해서 애들이 시험에서 틀리기도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과 용어를 엄마가 잘 몰라서 문제가 많아요.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용어를 몰라 어려움이 있어요.(학부모 6).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학교 체계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있거나 저학년인 부모의 경우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물과 과제를 지원하는 일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 애가 입학하고 제가 몰라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죠. 그거 생각하면 참 미안하죠. 애가 '엄마 이거 뭐야?'라고 물으면 제가 몰라서 대응을 못 하니 또 미안해요.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요. 또 애 학교 보내고 몰라서 답답했던 것이 받아쓰기예요. 애가 계속 10점, 20점 받아왔는데 이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주변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날마다 연습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학부모 1).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의 아이들이 준비물을 잘 안 챙겨온다고 해요. 알림장을 보내도 알림장이 뭔지도 모르고 해서 선생님들도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학부모 7).

현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관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모국 학교시스템과 달라서 안내자료에 명시된 용어를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학부모 2).

부모로서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모든 연구참여자가 공통으로 호소하였는데 특히 부모 모두 생계로 바쁠 경우 자녀의 학습을 위한 가정 내 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이들의 걱정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솔직히 다문화엄마들 낮에 일하고 돈 벌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애들 숙제 도와줘야 해요. 3학년까지는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한국 애들보다 우리 애는 항상 늦어요. 어떤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면 한국 아이들은 또 그만큼 앞서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것을 또 따라가야 해요. 끝까지 우린 못 따라가요(학부모 1).

이들은 한국 교육환경이 낯설어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학업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 이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깊었다(학부모 9).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시부모와 남편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정작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을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맡기

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다문화가정 어머니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지적하였다(학부모 8).

나. 자녀의 언어 및 학습에 대한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한국어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교에서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애들보다 한국말이 뒤처질까 걱정이예요. 이게 또 공부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학부모 5).

관련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은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기에 일상적인 언어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학교 수업에서 요구되는 읽기 이해력, 어휘력, 철자 쓰기, 작문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김은정,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68%가 언어발달지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엄진명, 이필상, 2016). 자녀의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정의 핵심적인 관심이자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남연구원(2021)이 최근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녀의 한국어 교육으로 거론되고 있다.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학업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의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습 부진을 일으키기에 학부모들의 고민과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증언과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한국어능력 문제로 학업 수행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녀의 학습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학년이 높아지니까 한국 역사나 사회과목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도와주기 힘들어요
(학부모 8).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은 증대되고 부모로서 자녀 학습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녀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하였다(학부모 1, 2, 9).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와는 달리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열의, 사교육 활용도가 높은 한국의 교육현실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고민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학부모 1, 9).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도움이 되고자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의 학년 및 연령별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라 하지 못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 몽골식으로 발음이 되니 애가 나처럼 한국말을 하게 될까 봐 많이 걱정돼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 제 발음이 이상한지 아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학부모 4).

저는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한 권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은지도 몰라요. 베트남 같으면 제가 나이나 학년에 맞는 책을 이는데 한국 책은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아주 간단한 책만 골라요. 어떤 책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학부모 2).

다.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관련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가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모국어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모국어를 가르치기도 하며,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가정내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자녀에게 활용할 모국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거론하였다.

엄마 말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고는 싶은데 이게 또 애들한테는 부담이 될까 봐...
엄마 말과 관련한 다양한 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편할 것 같아요(학부모 3).

저는 캄보디아 말을 애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읽어주면 더 빠르게 늘 것 같아요(학부모 7).

이처럼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하나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자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모국어 동화책을 '모국에 갈 때마다 직접 구매해오거나'(학부모 2, 3), '친정에 구매리스트를 보내서 부쳐 달라'(학부모 9) 요청하는 등 스스로 혹은 모국의 가족을 동원하여 책을 구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모국의 동화책을 스스로 읽게 되기를 희망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읽어주거나 자녀 스스로 읽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학부모 2, 3, 7).

라.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정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자녀가 초등 입학 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친정 부모, 시댁 및 주변 친척을 통해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는 가족과 친척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주변의 다문화여성에게 물어보거나(학부모 2, 3), 한국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학부모 2, 8, 9).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학부모 1). 국내 교육 관련 온라인 동호회, 인터넷포털에서도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학부모 1, 4).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로 교육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엄마들과 어울려서 물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한국 학부모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울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무리에 낄 수가 없고 늘 외톨이라는 느낌이에요. 학부모로서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예요(학부모 2).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들을 골라 경험하게 해주면 좋는데 정보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도 몰라요. 뒤늦게 알게 되어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도 많아요(학부모 3).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정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문희 외, 2011). 다문화가정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여부에 따라 관련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획득 여부가 결정되어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중복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교육 정보를 그들에게 직접적이며 체계적으로 제공해주고 안내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아이 교육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애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학부모 2).

아무리 내가 정보를 잘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과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내가 천 번 찾는 것보다 전문가로부터 한 번 제대로 듣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해줬으면 좋겠어요(학부모 4).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에서도 그들의 언어적 장벽을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교육청에서 입학 자료를 베트남어로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학교와는 다르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학부모 3).

긴 한국어를 읽고 이해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머리가 먼저 아파요(학부모 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관련 정보의 해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어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그들의 모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한글로 제공하더라도 쉬운 언어로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 방식에 있어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학교에서 자녀가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비추어져 또래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가 한국인 부모와 다른 이질적인 외모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출될 경우 학교에서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차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학교로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와 상담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올랐어요. 우리 애가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 당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 현재 서류상으로는 내가 한국인인데 굳이 다문화가정이라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나? 고민하다 보니 진짜 흰머리가 났어요. 입학식 때 학교에 아빠만 보낼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학부모 4).

초등학교 시기 학생들은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이 성립되며 자신과 타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심을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체로 초등학교시기에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자아정체성에 혼돈을 경험하고, 자신의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은정 2010, 90). 실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상당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요(학부모 3).

저희는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얼굴색이나 피부색 다 똑같거든요. 근데 애가 학교에서 자기소개할 때 자기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너는 애국가 부르지 마. 한국 사람도 아닌데!'라고 했어요. 애가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잠결에 막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학교를 한번 찾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다문화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차별받는 사례를 많이 봐요. 며칠 전에 본 아이는 중도입국 아이더군요. 그 아이가 1학년 때 왔는데 당시 친구한테 1년 내내 맞으며 울고 다녔다고 해요. 왜 맞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면서 친구가 그냥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학부모 8).

다문화가정 자녀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험은 최근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주 배경 청소년 4,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18.3%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외모적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차별 경험(27.1%)이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계민, 2021, 269-270).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외모 차이가 두드러지면 학교에서 주목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부모의 걱정과 두려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 지역사회, 친구로부터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지며 이렇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학교 생활에서 매우 위축된 성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설경옥, 황다솔, 심진화, 2018).

2. 다문화가정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연구참여자들의 공공도서관 방문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는 주로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도서관에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갈 생각을 못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학부모 1, 3, 4, 5, 6, 8, 9). 공공도서관에서 자녀가 필요한 책을 빌리고 책을 읽을 수 있기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장 일로 바쁘거나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멀다고 생각하여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중에서도 학부모 2와 7은 자녀와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도서관 이용에는 다양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어려운 한국어'라고 이야기하며, 회원 가입에서부터 도서관이용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관련한 두려움을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도서관이용을 꺼리는 데는 그들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 7은 연구참여자 중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조차도 모국어인 캄보디아어로 된 자료가 공공도서관에 없어서 집에서도 먼 ○○다문화도서관을 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들의 도서관이용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장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에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희망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본 결과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다.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로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의 학습과 과제를 직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학업 수행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동시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와 모국어 관련 자료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였다(학부모 2).

V.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프로그램 개발 방안

앞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경험 및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요구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및 학습에 대한 요구, 3)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관련한 요구, 4) 학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지원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자녀의 학습, 자녀의 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도서관이용교육과 안내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지원 영역

먼저,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초등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앞둔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예비학부모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학교 교육체계,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초등학교의 운영방침과 특별활동,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과목, 과목별 학습 내용, 초등학생의 학교에서의 생활, 입학 전 준비사항, 학부모의 세부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학부모 프로그램은 교육청,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지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입학 예정 대상인 경우는 입학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의 배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자녀의 학습과 언어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서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관련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교육 관련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자녀의 학습,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진로지도 등 교육 관련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 대상의 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방식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보면, 그들의 모국어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한글로 제공할 시에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적 장벽이 있는 이주민들은 문자정보보다는 이미지 정보나 영상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활용하며 정보해독에도 부담을 덜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이연옥, 장덕현, 2015), 도서관에서 정보제공 시에는 이와 같은 이주민의 정보이용 경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녀 학습지원 영역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및 숙제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숙제와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숙제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숙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서가 지역 내 학생이용자들의 숙제를 파악하고 도서관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숙제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숙제 및 과제 해결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학습전략 수립, 참고정보원 탐색, 독해, 자기소개서 작성, 도서 추천 등 이용자의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도서관의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무료 과외 서비스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정소현, 김종성, 2015, 149-158).

또한, 우리나라 광양공공도서관과 진천군립도서관이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숙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초등학생이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방학 숙제를 함께 해가는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여주, 2016).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숙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지역 내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숙제 및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 인력의 확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멘토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을 비롯하여 퇴직한 교사들의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자녀의 언어교육지원 영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문해력과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서 이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해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독서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한국어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서울 조원도서관을 비롯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서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에 좋은 책을 안내하고 부모들의 가정 내 자녀 독서지도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일상적인 독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국적 및 언어를 파악하여

관련 언어로 된 외국어 아동도서 코너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이중언어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별 아동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된 도서 대상 책 읽어주기 및 북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에게는 도서관이 소장한 다문화가정 모국어 도서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도서대출을 유도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유용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로 책 읽어주기 및 북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하거나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사례로서는 다문화도서관모두에서 운영한 ‘엄마나라 동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5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모국의 동화를 읽어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지속적인 모어 자극을 통해 이중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문화어린도서관모두, 2009, 24). 서울조원도서관에서도 ‘엄마 모국어 배우기 중국어교실’이 운영 중이나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모국어를 경험하고 즐기는 도서관프로그램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부모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주부모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다양한 배경에 대한 자부심, 다문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정서적 안정감 획득 등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모경환 외, 2015). 이 같은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도서관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접하고 익히며 즐기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이해교육 영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결혼이주여성 모국의 의식주 등의 문화를 소개하고 간단한 음식 만들기와 전통의복을 입을 수 있는 타문화체험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과 차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순, 이미정, 홍유나, 2014, 67). 따라서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일환으로 비다문화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상호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의 차원에서 어린이도서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미중앙도서관과 이즈미도서관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간행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그림책을 선별하여 국가별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회에 맞춰 북토크와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즈미도서관의 경우 '동화책에서 알아보는 아시아 국가'와 '다문화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아 각국에서 출판되고 일본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소개하는 동화책 약 200권을 국가별로 전시하고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임형연, 2019, 452-454).

또한, 도서관의 특성과 내용에 기반한 다문화이해교육 모델로 우리나라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 운영한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출판되고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된 것으로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가 담겨있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독서프로그램에 기반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부평기적의도서관, 2007). 이외 부산동구도서관, 대구서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광주무등도서관 등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처럼 각국에서 출판된 어린이 책과 독서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동의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어 이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모국문화를 소개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5. 도서관이용교육과 안내

앞서 다문화가정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매우 낮은 반면 자녀의 교육문제와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도서관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과 자녀 대상의 견학프로그램과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에게 도서관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서관이 소장한 다문화가정 모국어 도서목록을 제공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그들의 도서관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들의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관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견학 및 도서관이용교육 시에 배포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관련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교육 문제' 영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요구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및 학습에 대한 요구, 3)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관련한 요구, 4) 학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지원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유형을 바탕으로 1)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지원, 2) 자녀의 학습, 3) 자녀의 언어교육, 4) 다문화 이해교육, 5) 도서관이용을 위한 안내와 교육 영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다섯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다섯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단독 형태로 운영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간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일회성이나 단기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프로그램별로 일회적 혹은 단기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언어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서관프로그램을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자녀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한국에서의 인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도서관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간에 서로 친분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을 하는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 간의 만남과 교류와 소통의 장소이자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교류와 연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이 이주민을 위한 만남의 장소에서 나아가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udunson, Essmat, & Aabø, 2011). 국내에서도 도서관이 이주민의 연대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데(김윤영, 2019), 다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 사서는 도서관 공간이 이주민에게 줄 수 있는 이 같은 의미와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의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저조한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구정화 외, 2020, 232-233).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를 이용자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모집에 국한한 협력이 아니라 앞서 내용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예비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와 같이 교육청,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서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아웃리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이주민 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직접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을 홍보하는 안내자료를 디자인할 시에는 다문화가정의 리터러시 수준과 관계없이 해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로 안내할 경우는 다국어로, 한글로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용어를 선택하고 영상이나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여 외국인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그들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세부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도서관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대상자인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초점을 두고 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통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유학생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가정, 국제 결혼으로 중도입국한 자녀가 있는 다른 유형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관련 요구 조사와 이들 대상의 도서관프로그램 개발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남연구원 (202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 (현안연구 2021-23).
- 교육부 (2021).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실태. 교육통계서비스, 2021(12).
- 구정화, 우윤희, 신난희, 조용완 (202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주민과 다문화전문가 및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213-243.
DOI: 10.16981/kliss.51.2.202006.213
- 김강남 (2021).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15(1), 118-142.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103>
- 김영순, 이미정, 홍유나 (2014). 공공도서관의 다문화교육 서비스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예술 교육연구, 9(5), 59-82.
- 김윤영 (2019).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242-270.
- 김은정 (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3), 5-34. DOI: 10.16999/kasws.2015.46.3.5
-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https://doi.org/10.16999/KASWS.2011.42.1.117>
-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27.
-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2009). 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활동 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 임정수 (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실.
- 부평기적의도서관 (2007).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연구보고 2011-13), 육아정책연구소.
- 설경옥, 황다솔, 심진화 (2018).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

- 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71-90.
-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 양계민 (2021).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MYF21-19-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수연, 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311>
- 엄진명, 이필상 (2016). 유아기 언어발달지연을 겪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문해력 발달에 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연구. 통합교육연구, 11(2), 139-165. <https://doi.org/10.26592/KSIE.2016.11.2.139>
-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2), 47-74.
-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 이연옥, 장덕현 (2013).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57-384.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357>
- 이연옥, 장덕현 (201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171-199.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171>
- 이재분, 이해영, 김혜원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현황 및 인식. 한국교육, 36(2), 3-29.
- 임여주 (2016).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55-490.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455>
- 임여주 (2018).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 다문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99-3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임형연 (2019). 글로벌시티즌십 교육과 일본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외국학연구, 50, 437-460.
- 장은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예비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3), 79-99.
- 정소현, 김종성 (2015). 공공도서관 '숙제도우미' 서비스 연구. 2015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149-158.
-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25-356.

-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91-12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91>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35>
- Audunson, R., Essmat, S., & Aabø, S. (2011). Public libraries: a meeting place for immigrant wome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3), 220-227.
- Caidi, N., Allard, D., & Quirke, L. (2010). Information practices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4, 504-505.
-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ition.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462>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 Park, Miyoung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 Bupyeong Miracle Library (2007). *Meet with a World Friend with a Picture Book*. Seoul: National Library of Children and Youth.
- Chang, On Jeong (2010). A study on an educational program for school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3), 79-99.
- Cho, Yong Wan (2006). Information service for overcoming information poverty of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325-356.
- Eom, Jin-Myoung & Lee, Pil-Sang (2016).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the literacy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2), 139-165. <https://doi.org/10.26592/KSIE.2016.11.2.139>
- Gyeongnam institute (2021). *Survey of the Situation of Foreign Residents of Gyeongsangnam-do (Current Issues Research 2021-23)*.
- Han, Yoonok, Cho, Mi-ah, & Kim, Soo-Kyoung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35>
- Han, Yoonok, Kim, Soo-Kyoung, & Cho, Mi-ah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91-12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91>
- Jung, So-Hyun & Kim, Jong-Sung (2015). A study on the service of 'homework assistance' in public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2015 Summe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9-158.
- Kim, Eun Jeong (2015).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se manager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3), 5-34.
<https://doi.org/10.16999/KASWS.2015.46.3.5>
- Kim, Hye Mee, Won, Seo Jin, & Choi, Sun Hwa (2011).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1), 117-149. <https://doi.org/10.16999/KASWS.2011.42.1.117>
- Kim, Kang Nam (2021). Learning and daily life of children from migrant backgrounds changed by Covid-19. *Multiculture & Peace*, 15(1), 118-142.
- Kim, Young-Me & Cho, InSook (2011).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multicultural users on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03-124.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103>
- Kim, YoungSoon, Lee, MiJung, & Hong, Eu-Na (2014).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udy of public library's multicultural service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9(5), 59-82.
- Kim, Yoon Young (2019). Making identity of multicultural space and discursive discourse: the case of two small public libraries, Damunhwa and Modoo in Wongok-dong, Danwan-gu, Kyonggi-do, South Korea. *Space & Environment*, 29(4), 242-270.
- Koo, Joung Hwa, Woo, Yunhee, Shin, Nanhee, & Cho, Yong Wan (2020). Immigrants', multicultural experts' and librarians' perception and needs analysis on current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213-243. DOI: 10.16981/kliss.51.2.202006.213

- Lee, Geong-Ran & Hahn, Bock-Hee (2009). Multi-culture service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20(2), 47-74.
- Lee, Jae-Boon, Lee, Hae-Young, & Kim, Hyewon (2009). Core competencies and perceptions of female immigrants in international marriages on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6(2), 3-29.
- Lee, Mijung & Lee, Mi 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 Lee, Yeon-Ok & Chang, Durk-Hyun (2013).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357-384.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357>
- Lee, Yeon-Ok & Chang, Durk-Hyun (2015).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171-199. <https://doi.org/10.16981/kliiss.46.3.201509.171>
- Lim, Hyoung-Yeon (2019).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ervices of Japanese library.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50, 437-460.
- Lim, Yeojo (2016). A study of young adults'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55-490.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455>
- Lim, Yeojo (2018). A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libraries and local organizations: focusing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99-3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e Foundation Policy Offic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A Project Plan to Promote Multicultural Services in the Librar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e Foundation Policy Office.
- Ministry of Education (2021).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Statistics Services, 2021(12).

- Mo Kyung-Hwan, Lee, Jae-Boon, Hong, Jong Myung, & Lim, Jeonsoo (2015).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linguistic minority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8(3), 197-226.
- Modoo Multicultural Children's Library (2009). *A Program Manual for a Fairy Tale Trip to Mom's Countr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Oh, Mahn Seug (2011). Realiti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preliminary results from interviews of six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4(1), 43-77.
- Oh, Sung Bae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 Seo, MoonHee, Yang, MiSun, Cho, HyeJoo, & Jung, EunMi (2011). *A Survey on the Status of Child Car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mands for Child Care Support (Research Report 2011-13)*,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Seol, Kyoung Ok, Hwang, Dasol, & Sim, Jin Ha (2018). Multicultural children's perceived discrimination, internalized stigma and self-esteem: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71-90.
- Yang, Kyemin (2021). *A Survey on the Status of Young Adul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MYF21-19-GA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Yang, Soo-Youn & Cha, Mikyeong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311-332.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311>